

작품 · 행사 모두 풍성, 관객 감소 불구 ‘호평’

10월16일 14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나는 곤경에 처했다!〉 등 수상



역대 최대 규모(70개국 355편, 803회 상영, 예산 99억 5,000만 원)로 치러진 14회 부산국제영화제가 9일간의 축제를 모두 마쳤다. 지난 10월 16일,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야외 상영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는 폐막작 〈바람의소리〉가 상영됐다.

이번 영화제에 초청된 게스트는 국내 3,178명, 해외 860명을 비롯 아시아필름마켓(AFM) 게스트 등을 포함해 총 6,400명에 이르렀다. 취재진 또한 내외신 기자를 포함 2,202명이 등록하면서 모든 부문 참가자 수가 사상 최대의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관객 수는 17만 3,516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영화제에서 신종 플루와 관련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웠지만, 아쉽게도 신종 플루의 영향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었다. 대신 예년과 다르게 올해 영화제는 외국인 관객이 급증하고, 영화제를 찾는 연령층이 다양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영화제의 전반적인 운영은 합격점을 받을만하다는 평가다. GV 취소나 통역 문제, 야외 스크린 상영 시설 등으로 인한 사고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큰 사고 없이 매끄럽게 운영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게스트와 취재진 수, 참가국 숫자가 늘어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아프리카, 네팔, 카자흐스탄, 이라크와 같이 지금껏 소외돼 왔던 나라의 영화들을 대거 초청하면서 영화제의 외연을 넓힌 점도 눈에 띈다. 폐막식 전 기자회견에서 김동호 집행위원장은 “역대 최대 월드 프리미어와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상영(144편)을 성사시키면서 많은 초청작들이 부산국제영화제 이후 열리는 해외 우수 영화제에 초청됐다”며 이로 인해 “수준 높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호평을 얻었다”고 밝혔다.

영화 상영을 제외한 각종 행사 중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행사는 유럽과 아시아 영화프로듀서들을 위한 미니-EAVE 행사, 3D 영화 컨퍼런스와 워크숍이었다. 이 두 행사는 영화 제작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영화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비전을 제시, 미래를 선도하는 영화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조했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경쟁 부문인 ‘뉴 커런츠상’은 소상민 감독의 〈나는 곤경에 처했다!〉와 이라크 사우렛 아민 코르키 감독의 〈킵 오프〉가 공동 수상했다. 더불어 필리핀 GB 삼페드로 감독의 〈마닐라의 청춘, 빛과 그림자〉는 ‘특별언급’의 영광을 안았다. 또 비(非) 아시아권 신인감독의 발굴

을 목표로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경쟁 부문인 ‘플래시 포워드상’은 핀란드 자이다 베르그르트 감독의 〈루퍼트와 에버트〉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밖에 스웨덴, 대만 제작, 호콘 리우 감독 연출의 〈미스 키키〉가 ‘특별언급’됐다. 아시아 영화진흥기구가 수여하는 ‘넷팩상’은 박찬욱 감독의 〈파주〉에, 관객들이 직접 뽑은 영화에 돌아가는 ‘KNN 영화상’은 지양 웬리 감독의 〈안녕 할아버지〉에게 돌아갔다.

김수연 기자

PIFF 2009 수상작	
뉴 커런츠상 사우렛 아민 코르키 〈킵 오프〉, 소상민 〈나는 곤경에 처했다!〉	특별언급 : GB 삼페드로 〈마닐라의 청춘, 빛과 그림자〉
플래시 포워드상 자이다 베르그르트 〈루퍼트와 에버트〉	특별언급 : 호콘 리우 〈미스 키키〉
선재상 김재원 〈달을 수 없는 곳〉, 바실 미로네 〈월작〉	PIFF 메세나상 권우정 〈땅의 여자〉, 사바 드완 〈또 다른 노래〉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FIPRECI) 사우렛 아민 코르키 〈킵 오프〉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 (NETPAC) 박찬욱 〈파주〉
KNN 영화상 (관객상) 지양 웬리 〈안녕 할아버지〉	

FOCUS ON



25개국 75개 업체 45개 오피스 참여

아시아필름마켓 2009

10월 11일부터 4일간 진행된 ‘아시아필름마켓 2009’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씨클라우드호텔에 설치된 세일즈 오피스는 2008년 41개에서 2009년 45개로 증가했고, 참여 업체도 72개에서 75개로 늘어났다. 마켓 관련 총 참가 업체는 42개국, 534개 업체다. 마켓 스크리닝 숫자는 지난해 38편에서 43편으로 늘었고 50회 상영 동안 수많은 바이어가 극장을 찾아 거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참가자들이 늘어난 만큼 마켓 참가자들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작년에 비해 한국영화도 어느 정도 침체를 벗어났고,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 바이어들의 대대적인 참여도 마켓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세일즈 관례상 정확한 거래량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번 마켓에선 약 200만 달러의 세일즈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 기간 중 판매가 이뤄진 한국영화는 〈고사 - 피의 중간고사〉 〈외톨이〉 〈워낭소리〉 등이다. 〈고사 - 피의 중간고사〉는 일본, 프랑스, 태국에 판매됐고, 〈외톨이〉는 태국, 〈워낭소리〉는 대만에 판매됐다.

PPP(부산 프로모션 플랜) 프로젝트 관계자들도 마켓 기간 동안 연일 이어진 미팅 신청으로 활기찬 행보를 보였다. 총 500여 회의 미팅이 성사됐으며 “공동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증언이다. 부산영상위원회가 주최한 부산국제필름커미션(BIFCOM)에서도 활발한 로케이션 상담이 진행됐다. 경남 합천은 태원엔터테인먼트의 영화 〈7〉의 촬영 로케이션을, 경남 진해는 도도필름의 영화 〈엘리스〉의 촬영을 각각 유치하게 됐다.

어느 해보다 활발한 거래가 오고 간 아시아필름마켓의 내년 행보도 눈여겨볼 만하다. 내년부터는 마켓에 온라인 마켓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럽의 프로듀서 교육기관으로 널리 알려진 유럽영상산업기구(EAVE)와 워크숍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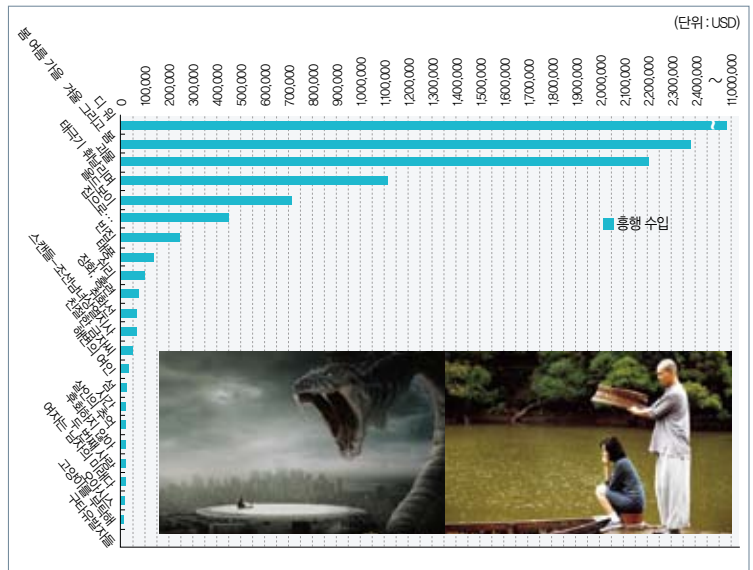
다음엔 누가 '미국' 가니? 한국영화 미국시장 진출, '국가대표' 콜레부터 벗어야

한국 최초라고 했다. 또 하나의 벽을 넘었다고 했다. 여기에 오기까지 눈물로 지새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했다. 이역만리에서 밀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했다. 하지만 도전했고, 결국엔 성공했다.

그래서 그게 누구나 하면... 2년 전 심형래, 혹은 2주 전의 원더걸스, 사실은 둘 다이다. 지난 10월 23일 JYP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소속 가수 원더걸스의 'Nobody'가 10월 셋째 주 미국 주간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76위에 올랐음을 알렸다. 인종의 벽을 깬 쾌거, 아시아를 넘어선 한류 등 원더걸스의 미국 진출 성과를 조명하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76위'의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시도도 적지 않았다. 순위에 반영된 앨범 판매는 음반 매장이 아닌 저스티스(Justice)라는 의류 매장에서 거둬들인 것인데, 저스티스는 로우틴을 타킷으로 한 아동복 상점에 불과하며 앨범 판매가도 1달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총 판매 장수도 1만 7,000여 장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여느 걸그룹과 견주어 봐도 뛰어나다고 보기 힘든 원더걸스의 가창력이 다시 도마 위

에 올랐다. 원더걸스의 성공을 축하하는 쪽과 축하할 수 없는 쪽에는 <디 워>의 미국 진출 당시 찬반으로 갈라졌던 그 '논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음악, 한국영화로서는 도무지 어려운 일을 미국에서 해냈다는 대견함과 그 살벌하다는 미국시장에 진출한 '한국 대표' 콘텐츠로는 수준(실력)이 대단치 않음에도 과대포장되어 국내에 역마케팅 된다는 점이 마뜩치 않다는 것이다.

평가는 분분할 수 있지만 성적표는 적나라하다. 대중음악 분야에서의 마찬가지로 영화 분야에서도 미국시장은 철옹성과 같다. 'Nobody'는 주간 빌보드 싱글차트 76위를 했고, <디 워>는 주간 박스오피스 5위까지 올랐다. 한국영화로는 유일하게 미 전역에 동시 개봉해 극장에서만 1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이 흥행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 뒤를 이어 한국영화 미국 진출의 이정표를 세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비롯해 총 4편의 영화를 미국 관객에게 선보인 김기덕 감독이 북미 개봉 흥행 차트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고, 올 7월 <박



쥐)를 개봉해 3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린 박찬욱 감독과 내년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한국 후보로 추천된 <마더>의 봉준호 감독이 최신작까지 꾸준히 미국 개봉에 성공하고 있다. 감독별 개봉편수나 순위가 아닌 영화별 흥행 수입에 주목해보면 아직까지 개봉 그 자체에 의의를 뒤야할 만큼 성과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미국시장의 높은 장벽을 뚫거나, 뛰어 넘거나, 혹은 다양한 우회로를 모색해 기술이건, 인력이건, 완성작 그 자체건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개봉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국가대표' 사례로 재차 검증당해야 하는 피곤함도 이제 사라져야 할 때다.

한승희(영진위 조사연구팀 연구원)

2002~2008년 한국영화 미국 극장 개봉 현황

순위	영화명	복미 개봉제	감독	개봉일	상영기간	흥행 수입	개봉관 수	배급
1	디 워	D-War	심형래	2007-09-14	5주	\$10,977,721	2,277	프리스타일
2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Spring, Summer, Fall, Winter and Spring	김기덕	2004-04-02	28주	\$2,380,799	74	소니 클래식
3	괴물	The Host	봉준호	2007-03-09	18주	\$2,201,923	116	매그놀리아
4	태극기 휘날리며	Tae-guk-gi	강제규	2004-09-03	15주	\$1,111,061	34	사무엘 골드윈/IDP
5	올드보이	Old Boy	박찬욱	2005-03-25	27주	\$707,481	28	타탄
6	집으로...	The Way Home	이정항	2002-11-15	25주	\$445,367	20	파라마운트 클래식
7	빈집	3-Iron	김기덕	2005-04-29	16주	\$241,914	31	소니 클래식
8	태풍	Typhoon	곽경택	2006-06-02	5주	\$139,659	24	파라마운트 클래식
9	쉬리	swiri	강제규	2002-02-08	7주	\$98,452	7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10	장화, 홍련	A Tale of Two Sisters	김지운	2004-12-03	19주	\$72,541	9	타탄
11	취화선	Chihwaseon	임권택	2003-02-14	21주	\$64,029	5	키노
12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The Scandal	이재용	2004-10-13	25주	\$63,332	8	키노
13	친절한 금자씨	Sympathy for Lady Vengeance	박찬욱	2005-08-19	17주	\$45,289	6	타탄
14	해변의 여인	Woman on the beach	홍상수	2008-01-09	2주	\$23,686	1	뉴욕커
15	섬	The Isle	김기덕	2002-08-23	14주	\$20,666	2	엠파이어
16	시간	Time	김기덕	2007-07-13	3주	\$16,070	1	라이프사이즈
17	살인의 추억	Memories of Murder	봉준호	2005-07-15	3주	\$15,357	1	팜
18	후회하지 않아	No Regret	이송희일	2008-07-25	8주	\$15,347	2	리젠트
19	두 번째 사랑	Never Forever	김진아	2008-04-11	2주	\$14,485	2	아츠 알리
20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Woman Is the Future Of Man	홍상수	2006-03-03	5주	\$11,807	1	뉴욕커
21	오아시스	Oasis	이창동	2004-03-07	1주	\$10,304	2	라이프사이즈
22	고양이를 부탁해	Take Care of My Cat	정재은	2002-10-18	4주	\$9,866	2	키노
23	구타유발자들	A Bloody Aria	원신연	2008-01-04	1주	\$781	1	이매진아시아

출처 : 닐슨 EDI, IMDb Pro, '2007년 세계 영화산업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황동미 · 한승희 외(2009), 재인용